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게 듣는다 _ 문화일반

비문화적 의식에서 문화적 의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

culture 'art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관이 주도하는 문화정책이나 문화행사들이란 대체적으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들은 때로는 편견에 의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편견이 형성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면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예술계가 새로 출범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이러한 부정적인 면들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 때문이리라.



강준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문화일반
- 춘천인형극제 등 문화행사 기획 디서
-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원장 (04-현재)
- (사)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다움연구아카데미 원장
- 경기문화재단 세계평화축전 총감독 (현)
- 문화기획자

변화에 대한 기대와 변화의 한계성

문화계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조짐이 보일 적마다 우리는 큰 기대를 걸곤 했다. 그 옛날 문교부 시절이 끝나고 문공부로 바뀔 때도 그랬고, '문화관광부'라는 독립 부처로서 최초의 발걸음을 할 때도 그랬으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시작할 때도 그랬었다. 그러나 문예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뀐다는 사실처럼 큰 기대가 나타난 적은 일찍이 없었던 듯싶다. 추측컨대 아마도 그 이유는 이제까지의 문화정책관련 변화가 대체로 정부 주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금번 위원회의 탄생은 문화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일 수도 있는 예술지원 정책을 민간주도의 기관으로 이양시킴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관이 주도하는 문화정책이나 문화행사들이란 대체적으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들은 때로는 편견에 의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편견이 형성되기까지는 관료적 행정시스템이 갖는 현실적인 성과 올리기,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몰이해, 책임회피, 문화에 대한 신념부족, 비문화적 로비행위의 허용, 공익정신의 결여, 먼 미래를 보려하지 않는 자세, 국제적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무지, 예술가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 등등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문화예술계가 새로 출범하는 예술위원회에 기대를 크게 거는 이유도 이러한 부정적인 면들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 때문이리라. 물론 그래야만 하고 또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러한 변화를 이론적으로 이야기 할 때 빠지기 쉬운 요소는 '시간'이다. 즉 그렇게도 고칠 점이 많아 기대가 큰 것이라면 그 만큼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씩 고쳐나가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급해지기 쉽다. 그래서 일을 그르치기도 쉬워진다. 사실 새로 생긴 위원회(실제로는 설립위원회이지만)가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 역시 시간에 관한 문제로, 한 달 이내에 문예진흥원을 인수 또는 승계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에 대한 한계를 지우는 첫 번째 요소인 것이다. 더구나 위원회 첫 번째 임기 3년 중 1년은 지난해에 이미 짜 놓은 지원계획을 수행하는 해이기도 하기에 첫 번째 1년은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

고, 새로운 심사방식이나 새로운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여과와 검토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 참 후에나 그 실행이 가능해진다. 가장 중요한 민간기금의 확립의 경우는(이 부분의 성과가 뚜렷할 때야 비로소 위원회는 문화부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으며 동시에 진정한 민간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 비해 문화예술계의 참을성 역시 일반 국민의 참을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 초조심만 늘어날 뿐이다.

균형잡기

신체적인 문제들의 대반이 신체적 요소들 간의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 생겨나듯이, 문화와 사회, 또는 예술계 내에서의 많은 문제점들 역시 제반 요소들 사이의 불균형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우리의 의식은 과연 세계 속에서 경제력만큼 떳떳하고 자랑할만한가? 세계적인 예술가를 배출해 내는 나라로서 예술시장도 그 만큼 튼튼한가? 등등을 생각해 본다면 문화나 예술과 관련해서 우리의 경우 그 균형감은 형편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란 바로 이렇게 깨어진 균형을 바로 잡는 일일 것이다.

그 첫 번째 경우는 예술 수준과 향수 수준의 균형이다. 매해 수천 명의 음악가와 미술가들이 예술대학에서 배출되면서도 음악시장이나 미술시장은 날로 피폐해져만 가고 있다. 언제인가 우리나라에서 한 번 밖에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태리 오페라단이 대만에서 3회의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가 매진되었다는 얘기에 크게 놀란 적이 있다.

다음은 중앙과 지역 간의 균형이다. 이제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모두가 도회지식 생활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교육의 기회, 전과 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한 제반 정보의 공유 등을 본다면 중앙과 지역이 매우 근접해 있어야 마땅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예술부문의 창작과 향수에 있어서 중앙과 지역과의 균형잡기는 위원회의 중대한 임무가 될 것이다.

진지한 예술과 대중예술과의 균형 역시 심각한 상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업주의적 경향은 당연히 감각

적인 대중예술을 발달케 하고 진지한 예술을 구석으로 내몰아 버린다. 이와 관련이 있지만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영리적 예술 활동과 비영리적 예술 활동 간의 균형잡기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프로 예술인과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균형도 우리 예술계에 중요한 요소이기 에 위원회가 주목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에 들어 갈 것이다.

기금확충과 심의의 공정성 확보

기금 확보란 또 다른 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써 공공기금과 민간기금의 균형을 잡아 나가는 일 역시 위원회가 첫 번째 삼년 안에 시작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유럽의 경우는 예술에 대한 지원이 간접 지원일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연장을 크게 지원하면 공연장은 지원 받은 만큼 사용료를 내림으로써 공연제작단가를 줄이며, 공연단체는 관람료를 인하하여 중국에는 향수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연단체가 지원을 받아도 관람료 인하와는 상관없는 우리와는 매우 대조적인 방식으로써, 이제까지의 지원방식이 직접 지원에 가까웠다면 차후 위원회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균형 있게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원에 있어 가장 큰 말썽들은 오래 이 심의와 관련된 공정성 여부에 있었다. 그러나 공정성에 대한 시비란 대체적으로 '신뢰'나 '공익성'이 결여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상호 신뢰성이 구축된다면 행정적으로 그렇게 많은 작업이나 서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심의방식보다 면담방식을 통해 지원도 가능하리라 본다. 이 역시 위원회가 연구해야 할 몫이다.

의식의 전환

이렇게 많은 작업들을 예견하고 또 수행한다 해도 우리의 의식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도가 달라지고 규정이 달라지고 방식을 바꾸어도 과거의 의식이 우리 모두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서로 믿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것에만 집착하며, 내 것 만을 위해 으르렁거리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비문화적 의식에서 문화적 의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나부터, 우리부터, 또 예술위원회부터.